

천지창조

④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나레이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와는 그 아기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하와

여호와와 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어요.

나레이션

하와는 또 한 아기를 낳았어요. 그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땅을 가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모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갔어요. 아벨도 제물을 가져왔어요.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가인,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네가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죄를 지었다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나레이션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들로 나갔어요.
들에 있을 때, 가인은 일어나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

가인,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네 동생의 피를 받은 그 땅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땅을 일궈도 땅은 다시는 그 열매를 내어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나레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인은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는 자기가 받을 벌이 너무 크다고 느꼈어요.

가인

이 벌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큼니다.
제가 이 땅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주님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나레이션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
누구라도 가인 너를 죽이는 사람은 일곱 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나레이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